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생활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 주민을 아우르고, 체류형 예술여행을 통한 관광객 유입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 동구 야경예술여행투어 현장과 제4회 광주버스킹월드컵에서 1위 골든 버스킹상을 수상한 코모로·프랑스 뮤지션 엘리야스의 무대 모습.



# 시민 일상·관광 흐름 잇는 ‘문화도시 조성’ 나선다

##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올해 계획 발표

### 생활문화·체류관광·글로벌축제 ‘삼각축’ 본격 가동 동아리 행사 확대·아트팩스·동구칠성 등 운영 ‘주력’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생활문화 도시를 조성해 지역 주민을 아우르고, 체류형 예술여행을 통한 관광객 유입에 적극 나선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을 ‘제2도약기’로 삼아 동구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전략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구형 생활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예술여행 플랫폼도시 조성, 더 재미있는 글로벌 축제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생활문화부터 체류형 관광, 글로벌 축제까지 아

우르는 입체적 전략으로, 주민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동구의 맛과 멋,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먼저 재단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도시 조성에 힘을 쏟는다. 동구 124개 생활문화동아리가 함께 만드는 ‘제2회 동구 동아리 페스티벌’을 대표 시민참여형 축제로 키운다. 또 기존 실내에서 진행했던 ‘스트릿댄스 캠프’는 올해 5·18광장에 오른 형 특설무대로 조성해 야외 행사로 치른다. 장기적

으로는 스트리트 페스티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3회째를 맞은 캠프는 마스터클래스와 배틀을 비롯해 장르별 워크숍, 킥퍼런스, 셀러마켓 등으로 구성된 스트릿문화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재단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예술사업도 운영한다. 일상 가까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술배달 사업 ‘문화보따리’를 통해 문화소외계층 가정과 거점 공간을 직접 찾아 문화 공연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구의 야경 명소를 무대로 한 이머시브형 거리예술공연 ‘2026 빛의 소리’는 야간 문화생활권을 조성하며 주민과 관광객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흥학관과 총장22 갤러리 카페 등 관내 유휴공간에서 ‘월간 문화갤러리’를 선보이고, 동구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와 공간 등을 지원한다.

체류형 예술여행 ‘골재도시’ 전략 역시 본격화된다. 스마트 ICT 기술을 접목한 광주아트팩스를 활

용해 동구랑 테마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숙박, 음식, 놀이 별 광주여행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동구 골목관광 브랜드인 ‘동구칠성’을 중심으로 해설형·미션형 등 맞춤형 투어상품을 선보인다. 이는 단체·개별 관광객 유입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게임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기아타이거즈, e-스포츠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남도 예술여행’ 광역 관광코스가 새롭게 구축된다. 남도 미식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해 동구 대표 주전부리 상품을 개발하고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이며, 동구를 남도 미식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동명동 여행자의집(ZIP)은 재단이 직접 운영을 시작, 체험·교류 중심의 문화관광 복합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지퍼 집들이’(3월), ‘지퍼 썸머 다이닝’(7월), 기획 프로그램 ‘취향 가이드 ZIP’ 등이 마련된다. 동구예술여행 거

점공간인 동구예술여행센터,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 친구 및 주민문화해설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단은 글로벌 버스킹 축제의 명맥도 이어간다. 5회째를 맞는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지난해보다 규모는 다소 축소되지만, 국내외 300개 팀 이상이 참여하는 경연형 축제로 치러진다. 본선 무대는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 몰입도를 높인다. 전국 청소년 대상 ‘틴틴버스킹’, 스트릿댄스 배틀경연,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릴레이를 통해 축제 기간 내내 동구를 공연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총장프렌즈 캐리커 샹 품 판매 및 유통망을 확대해 총장축제 브랜드를 강화한다.

문창현 대표는 “올해 재단이 4년치를 맞았다. ‘제2도약기’로 삼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며 “동구의 흥미진진한 자신과 이야기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내 매력적인 문화관광 골재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 강인한 삶 응집력 어루만진 생명의 시학

전남 여수를 연고로 활동 중인 이민숙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첫눈이야’를 문학과행동시선 7번째 권으로 펴냈다.

시인의 시작품은 강인한 삶의 응집력과 생명력을 기조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존재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소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객관화되고 공동화된 영역에까지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적, 사회적, 객관적 사유들에게 대한 탐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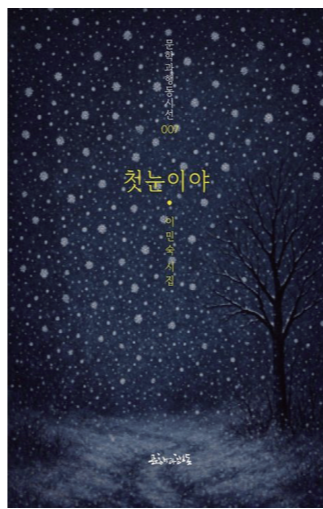
특히 이번 시집은 역지사리온 수사 중심의 관념을 배격하고, 담담한 정서와 자연스러운 발맛의 울동감이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시 ‘봄의 노래’가 눈에 띈다. 시인은 ‘외롭다고 노래하리//자못 서러웠다고 눈물 지으리//미칠 듯 보고프다고 쓰러지리//노래도 춤도 내 하루는 아니었다고 웅크리리//그 진인한 사랑, 밤을 지새 눈물처럼 반짝이는 환희//통한이여 오라 슬픔이여 오라그냥 오라//노랑 등불 점쳐해 활활 노래 부른다 저 히어리//절망마저 봄의 노래다//도망자의 피맺힌 노래//파르타잔의 노래’라고 노래한다. 이 시는 10·19 여순항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던 곳, 순천시 주암면의 점치재에 오는 봄을 노래한 작품이다. 무

### 이민숙 네번째 시집 ‘첫눈이야’ 출간 4부 구성…출판기념회 31일 여수서

고하게 숨겨진 낚들에 대해 그 무슨 추모의 언어로 달랠 수 있을까. ‘절망마저 봄의 노래’가 되고 마는 한정 희생자들의 영혼을 조용하게 나지막이 마음으로 어루만질 뿐이다.

특히 항구에서 살고 있는 시인은 수생환경과 수생생물들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시적 형상화를 하고 있다. 뱀, 뱀꼬막, 외온이나 하화도, 우포늪, 파도, 문어, 물떼새 등이 시적 대상으로 호출되고 있다. 시 ‘꿈 하화도’에서는 ‘하화도꿈/어둠이 다 그라나 달은 써지 않는다/통발 속에서 몸서리 치던 문어의 춤처럼 세속적이다 달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어의 춤처럼 세속적이라는 접근이 모호하지만 시적 의미망을 확장해내고 있다. 통발 속은 감금이자 장차 죽음의 서사다. 그럼에도 같은 움직임만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생명성의 허비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시인이 말하는 세속은 다시 정립된다.

이번 시집은 ‘첫눈이야’, ‘거의 모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자는 왜 슬프지 않을까’, ‘봄의



노래’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분주한 일상 속 틈틈이 창작한 시 47편이 실렸다.

이민숙 시인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98년 ‘사랑의 깊이’에 ‘가죽’ 등 6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 시집 ‘나비 그리는 여자’와 ‘동그라미, 기어이 동그랗다’, ‘지금 이 순간’ 등을 펴냈다. 여수 ‘생물인문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고전과 인문학 읽기, 문학창작아카데미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글로벌 교육원 문학창작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31일 오후 4시 여수시립 이순신도서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개관 10주년 비움박물관이 여는 ‘인문학 산책’

### 30일·2월 27일·3월 27일 강연…전통예술·철학 등 매월 마지막 금 진행

광주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올해 ‘인문학 산책’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진과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비움박물관은 ‘비움에서 평화의 길로’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 문화의 원형과 근본 뿌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을 세계로 펼쳐는 K-문화 원류의 힘을 조망하는 인문학 산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30일에는 ‘노름마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 국가유산진흥원 이사장이자 현 담양군

문화재단 진옥섭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진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노름마치라 불리는 전통 예술 고수들의 삶과 정신을 통해 한국 예술이 지닌 원형적 힘과 공동체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2월 27일에는 ‘21세기 한국 철학을 찾아서’에 대해 한국 철학 연구의 대표 학자인 조성환 교수(원광대 철학과)가 이야기한다.

3월 27일에는 ‘한국인의 날과 씨’라는 주제로 배일동 판소리 명창이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의 근원을 소리와 이야기로 풀어낸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참배메터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산책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다시 비우고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며 “전통 예술과 철학, 소리 속에 담긴 한국적 가치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움박물관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고, 한국 전통 예술과 사상, 철학의 깊이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움박물관의 인문학 산책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한국 문화의 깊이와 미래를 함께 사유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6668.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판타지 인벤토리’ 작가와 작품 세계 이해해볼까

### ACC재단, 31일·2월 5일 전시 연계 토크·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병규·ACC재단)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선보인 게임형 어린이 전시 ‘판타지 인벤토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판타지 인벤토리’는 지난해 11월 25일 개막, 오는 3월 2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말마다 1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ACC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경험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워크숍은 오는 31일과 2월 5일 각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이뤄진다. 화차별 참여 인원은 최대 16명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번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판타지 인벤토리’의 주요 부문인 ‘기억의 전당’과 ‘인공지는 루니’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참여 작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한다.

‘기억의 전당’에서는 소

보람 작가가 자신의 작품 ‘녀의 기억극장’을 바탕으로 ‘기억이 움직이는 극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어린이 관람객은 미생물과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이야기를 듣고, 별과 태양, 달을 주제로 자신만의 드로잉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

장전프로젝트의 ‘인공지는 루니’에서는 ‘내 친구, 인공지는 루니’ 워크숍이 열린다. 장준영·전지윤 작가팀이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을 기술이나 기계가 아닌 반응하고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어린이는 얼굴 없는 인공지는 친구를 상상하며 시각화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는 어린이문화원 개관 이후 10년의 기록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게임 용어인 ‘인벤토리’를 차용해 어린이가 자신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을 탐색하며 미래를 상상하도록 구성했다.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숍 참여 신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소보람 작 ‘녀의 기억극장’



‘인공지는 루니’